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부위원장 인사말씀

핀테크기업 투자데이 인사말씀

2019. 5. 2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핀테크기업 투자데이'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기관, 금융회사
그리고 핀테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초연설을 맡아 주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님께
특별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금년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하나하나 고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를 개방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과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일 것입니다.

II. 투자의 중요성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시작과 성장에는
통찰력 있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왔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지의 영역(unchartered territory)을 향해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전폭적인 투자 때문입니다.

또한, 구글의 검색엔진 사업은 1998년,
투자자 벡톨샤임(Bechtolsheim)이 아이디어만을 듣고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의 수표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당시 10만 달러로 시작했던 회사는
20년 후인 현재, 8,100억 달러의 가치로 성장하였습니다.

만약, 콜럼버스나 구글이 투자자 도움 없이
창업자 개인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면
회사를 키워내지 못했고,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성공한 기업들과 달리
대부분의 투자 스토리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야 말로 기업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성공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일 것입니다.

III. 핀테크 투자 동향

* 핀테크 투자 통계 출처 : Pitchbook, KPMG

최근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핀테크 투자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09년→'18년)
366건에서 2,966건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투자규모는 약 41억 달러에서
약 1,257억 달러로 연평균 4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영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급결제·송금,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 '18년 핀테크 투자 규모(단위 : 억 달러) : 전체 1,257

- ① 지역별 : (美)508 (中)305 (英)223 (호주)5.8 (韓)5.2 (홍콩)5 (日, 싱가포르)3.8
- ② 산업별 : (결제·송금)601 (자산관리)236 (인슈어테크)185

반면, 우리나라 핀테크 투자 규모는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2015년부터 본격화되어
2018년 5.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직 그 규모는 전세계 핀테크 투자의 0.4%에 불과하여
우리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IV. 국내 핀테크 투자의 부족

이처럼 우리 핀테크 산업에
투자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① 먼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보와
투자자들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핀테크 산업은 바이오, ICT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의 관심과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② 또한, 핀테크를 잘 이해하고,
협력이 가장 필요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원인일 것입니다.

은행법 등 금융업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투자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회사 핀테크 출자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가 자회사 등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 * ① (하나금융지주) '16.8월, '핀크' 설립, 지분율 51%(SKT 합작)
② (현대카드) '16.12월, '블루월렛' 설립, 지분율 100%
③ (한화투자증권) '18.6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지분율 100%

③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개 유니콘*의
국내 자본 조달율은 평균 6%에 불과하며,
특히, 유일한 핀테크 유니콘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경우에는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전세계 326개의 유니콘 중 국내 유니콘은 6개 기업으로 (엘로모바일, 우아한
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L&P코스메틱, 쿠팡, 크래프톤) 전세계 6위

벤처자본의 작은 펀드규모*와
낮은 후속투자 비중**으로
스케일업(Scale-up)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13~'18년, VC펀드 평균규모 : (美) 1,500억원, (韓) 300억원
** 후속투자 비중 : (美) 90.7%, (韓) 52.9%

특히, 스타트업의 단기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후속투자를 진행하는 인내자본의 역할도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Uber)는
지난 해에만 1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9년 창업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으나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V.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① 먼저, 투자자들이 핀테크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샌드박스 운영, 낮은 규제 혁파,
오픈뱅킹 등 핀테크 활성화를 금융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② 또한, 핀테크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핀테크 기업, 국내외 VC,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핀테크 투자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매년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산업변화, 시계열 분석, 규제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연결과 융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이
대상발굴, 후속투자, 사업연계 등 투자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적극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한국성장금융은 MOU를 체결하여,
2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를
우선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미 발표된 성장금융의 핀테크 전용펀드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계획 등을 합하여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금운용 과정에서 샌드박스에 참여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우선 심사하여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도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내심을 가진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적극 동참하여 핀테크 산업이
스케일업(Scale-up)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VI. 맺음 말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내외 투자자 및 핀테크 관계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핀테크 분야에 투자자 역할이 커지면서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인내심을 갖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스타트업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 모두
훌륭한 투자자들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 발전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